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1999. 6

여인곤(국제관계연구실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정상회담 개최 배경	3
1. 회담개최 배경	3
2. 양국의 기본입장	6
III. 정상회담의 내용과 의의	8
1. 정치면	8
2. 안보·군사면	10
3. 경제면	12
4. 기타	15
IV. 우리의 고려사항	17

<부록> 한·러 공동성명문

I. 문제제기

- 냉전종식 이후 세계적 차원의 국제질서에서는 미국이 유일 초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미·러, 미·중 등 강대국 관계가 협력과 견제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호견제의 측면이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NATO는 인권보호를 내세워 유고 공습을 감행(1999. 3. 24)하였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를 신유고연방 주권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침략행위라고 비난하였음.

- 이와 함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도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한·미·일 3국의 대북 포괄접근 방안을 전하기 위해 미국의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북한을 방문(5. 25~28)하였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중국을 방문(6. 3~7) 하였음.
 - 남북한간에는 금강산 관광이 계속되고 이산가족과 비료지원 문제를 협의할 차관급 회담을 개최(6. 21)하기 위한 비밀접촉이 북경에서 진행중이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엘친 러시아 대통령과 바가반디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5. 27~30) 및 몽골(5. 30~6. 1)을 국빈 방문하였는 바, 특히 러시아 방문에서 엘친 대통령과 정상회담(5. 28)을 갖고 각계 지도자들을 폭넓게 만나 양국의 공동 관심

사를 심도있게 협의하였음.

○본 보고서는 금번 한·러 정상회담의 개최배경과 양국의 기본입장, 정상회담 내용과 의의를 고찰·분석하고 우리의 고려사항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II. 정상회담 개최 배경

1. 회담개최 배경

○ 금번 한·러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최근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악화된 양국관계를 재정립하고 실질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성에 대한 양국의 이해 일치로 개최되었음.

- 작년 미국, 일본,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는 김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외교를 마무리짓고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적인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음.
- 엘친 대통령은 국내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한국과 통상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었음.

○ 한·소수교(1990. 9) 이후 양국관계는 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1994년 전반까지 대체적으로 확대·발전되어 왔는 바, 한국 정부는 1991년 12월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본입장을 설정하였음.

- ① 한반도의 평화구도 정착 및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 ② 호혜적인 실질협력관계 증진을 통한 한국의 경제발전, ③ 북한내 정세에 대한 정보 획득 및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 북한관련 문제들에 대한 협조 요청.

- 반면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 이전까지는 남북한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한국 중심의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추진하였음.
 - 러시아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 및 소비재, 산업과 농업분야 개발 경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음.

- 이에 따라서 한국은 대러관계에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군사교류를 확대하며 교역을 증대시키는 한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 노태우 대통령과 엘친 대통령간의 서울 정상회담시 「한·러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됨(1992. 11).
 - 김영삼 대통령과 엘친 대통령간의 모스크바 정상회담시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가 선언됨(1994. 6).

-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한국의 자국에 대한 한국의 소규모 투자 및 경험차관 중단(1993. 8)에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엘친 대통령 방한시 속이 빈 KAL기 블랙박스 전달은 한국 국민들이 러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하는 계기가 되었음.
 - 1993년 말까지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는 2,354만달러, 24건으로 외국의 대러 총투자액 55억달러의 0.4%이었음.
 - 한·소수교 직후 한국정부가 약속한 30억달러 경험차관중 14억 7,000만달러(현금차관 10억달러, 소비재차관 4억 7,000만달러)가

집행되고 잔여차관은 러시아 정부의 원리금 및 이자 상환 지체로 중단되었음.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러시아는 한국과 미국에 불만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한·러간 경협분야에서의 갈등이 안보·군사분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음.

- 러시아는 1986년부터 추진해오던 북한 원자로 건설에 대한 기득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게 되었음.

- 김일성 사망(1994. 7)과 미·북 제네바 핵합의(1994. 10)를 계기로 러시아는 한국 중심의 대한반도 외교노선을 수정, '균형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러시아를 한반도문제 논의에서 재차 소외시킨 한·미 양국의 4자 회담 제의(1996. 4)는 한·러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었음.

○「국민의 정부」는 러시아와의 실질협력 증진을 주요 외교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설정하고 주변 4강의 공식적 지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수행하였음.

- IMF 사태로 대러관계를 소홀히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정보외교관 맞추방 사건(1998. 7)이 발생함으로써 양국은 수교이후 최대의 외교위기를 맞게 되었음.

- 이는 경협분야에서 발단된 양국간 갈등과 마찰이 안보·군사 분야로 확대되었다가 결국은 정치분야로까지 확산된 사건이었음.

- 양국은 김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외교관 맞추방 사태 이후 2명으로 축소되었던 상대국 주재 정보외교관 수를 원래 수준인 8명으로 회복시키는 등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음.

2. 양국의 기본입장

- 금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은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을 취하였음.
 - 엘친 대통령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개혁정책을 적극 지지함.
 - 한반도에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안정과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과 '동북아 6자회담' 구상을 설명하고 러시아 정부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함.
 -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과 미사일 개발, 생산, 수출 저지를 위한 대북 공조체제를 강화함.
 - 경제협력·확대를 위한 러시아측의 충실한 투자환경 조성을 촉구함.
 - 교육·문화부문 등에서의 교류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를 심화하고 양국의 이미지를 제고함.
- 한편,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분석됨.
 - 한반도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나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4자회담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반도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다자간 국

제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함.

양국간 교역량이 감소추세에 있고 한국의 대러 투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언급하고 교역과 투자 확대를 요구함.

동북아 안보문제와 관련, 미·일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효과적인 역내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형성의 당위성을 설명함.

Kilo급 디젤잠수함 등 러시아 군사무기의 구매를 적극 촉구함.

III. 정상회담의 내용과 의의

- 김대통령과 옐친 대통령간의 단독회담이 먼저 있었고 계속해서 양국 대표단의 확대회담이 개최되었음(5. 28).
 - 「한·러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회담직후 「형사사법공조조약」, 「나호드카 한·러공단 설립협정」, 「원자력협력협정」, 「산업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실시되었음.

- 정상회담의 주요내용과 그 의의를 정치, 안보·군사, 경제면 등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1. 정치면

- 김대통령과 옐친 대통령은 양국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국제문제를 논의하고 21세기를 향해 동반자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음.
 - 김대통령은 옐친 대통령이 주도해온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희망하였음.
 - 양국 국민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운데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양국간의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미래지향적

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한국측은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에 가입하려는 러시아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5년 만에 개최된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작년 7월 양국 정보의 교관 맞추방 사태로 악화되었던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김대통령은 엘친 대통령에게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을 설명하고 북한이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러시아측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러시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평가하였음.

- 김대통령은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강력한 지지와 협력을 끌어냄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 작업을 마무리하였음.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과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 러시아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임.

○김대통령이 모스크바 방문중 러시아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문제와 한국의 IMF사태 극복 노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는 바, 이는 앞으로 양국간의 폭넓은 유대관계 강화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김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러시아 고위인사들은 스테파신 총리, 셀레즈네프 하원의장, 주가노프 공산당 당수, 알렉세이 2세 러시아 정교 총주교, 루즈코프 모스크바 시장, 야블린스키 야블로코 연합 당수 등임.
- 양측은 국가와 정부, 의회간의 대화 확대와 다양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음.

2. 안보·군사면

○ 김대통령과 엘친 대통령은 양국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음.

-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과 미·북 제네바 합의(1994)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한·러 양측은 모든 국가의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과 「무기용 핵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협상의 성공을 희망하였으며, 미사일의 개발과 수출을 포함한 국가미사일계획이 동북아 역내 안정과 국제비확산체제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 김대통령이 엘친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러시아측의 협조를 요청한 결과이며 한반도 비핵화 및 대량살상무기 감축의 중요성을 밝힌 것임.
- 북한에게는 군축에 관한 일련의 국제조약과 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도 갖고 있음.
- 한편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의 TMD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한국의 TMD 참여 가능성을 견제함.

○정상회담에서 엘친 대통령은 Kilo급 디젤잠수함과 SU-35 전투기 등 러시아 군사무기의 구매를 김대통령에 강력히 요청했을 가능성이 큼.

○양측은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이 참가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대화 구축을 위한 제안들을 환영하고, 다자대화는 4자회담과 동시에 기능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음.

- 이는 러시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나 김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6자회의'를 양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의지를 표명한 것임.
- 러시아측은 4자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용의를 표명하였는 바, 이는 러시아가 한반도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간 국제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기존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과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아세안지역포럼」(ARF)이 유용하다는 것을 공동인식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

- 이는 한·러 양국이 역내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접근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ARF의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함.

○ 양측은 국제분쟁이 정치,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들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유엔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음.

- 엘친 대통령은 코소보문제의 정치적 해결만이 발칸에서 평화를 회복할 수 있고 유럽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김대통령은 이에 동의를 표했음.

- 코소보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반대하고 분쟁해결을 위해 유엔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는 바, 이러한 러시아측의 입장이 공동성명에 반영되었음.

3. 경제면

○ 금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교역 및 경제협력에 대한 문제로서, 특히 러시아는 회담 직전부터 러시아와 한국 관계의 주요 요인이 경제협력임을 강조하였음.¹⁾

- 약 90명의 한국 경제인들이 김대통령을 수행하였음.

○정상회담 前日(5. 27) 김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경제인에 대한 만찬연설에서 양국간 경협외 중요성 및 발전방향과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 정부차원의 「한·러·CIS 경제협회」와 민간차원의 「한·러포럼」이 양국간 경협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국간 경협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음.

- 양국의 무역과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양국의 외화 및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몇 개의 협력프로젝트들이 지연되고 있으며 투자 여건의 미비와 사회하부구조의 부족으로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 양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고 현 위기를 경제번영을 위한 기회와 경협강화를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함.

-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기초과학기술과 한국의 훌륭한 노동력 및 기술이용 능력에 기초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21세기에 수행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의 하나임.

- 양국은 단순히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협력적인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과 엘친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문제의 실무

1) 「러시아 방송」, 1999. 5. 27.

적인 연계증진에 큰 관심을 갖고 교역과 투자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경험증진에 합의하였음.

- 양국 교역량이 최근 감소추세(1997년 33억270만달러, 1998년 21억1,250만달러)에 있는 바, 양국 정상은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고 외환부족 실정을 감안하여 민간차원의 구상무역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음.

- 엘친 대통령은 한국의 대러 투자확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고, 양측은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을 포함한 한·러 자원협력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음.

- 양측은 모스크바에서 개최(5. 12)된 제2차 「한·러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무역, 투자, 에너지와 천연자원, 제조업과 공업, 중소기업, 과학과 기술, 전기통신, 어업, 해운, 환경보호, 지역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양측은 한국과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간의 경제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와 러시아 지방관리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금번 정상회담은 한·러 양국이 교역, 투자와 기타 경험 및 산업 분야에서 21세기를 향한 실질적인 협력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음.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부간의 「나호드카 자유경제구역내 한·러공

단 설립 협정」이 서명되었음.

- 동 협정은 러시아 연해주 나호드카에 한·러 양국이 공동으로 공단부지를 조성하고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한국토지공사」측이 공단부지를 49년간 장기임차하여 내부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러시아의 나호드카 행정위원회는 외부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한편, 러시아정부는 공단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조세감면 및 행정조치 간소화 등의 특혜를 부여하기로 함.
- 양국 정상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나호드카 한·러공단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마련하였는 바, 동 협정은 양국간 투자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임.

○자동차, 전자제품, 식료품, 의료기구, 전자재 등 한국상품 전시회가 54개 한국기업과 12,000여 명의 러시아 실업계 대표들이 초청된 가운데 모스크바의 최대 전시관인 「엑스포 전시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5. 25~29)되었음.

4. 기타

○정상회담 직후 양국간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이 각각 서명되었음.

-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양국의 공동 과학연구개발, 기술 정보 및 첨단기술 교환 등을 내다보고 있음.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는 핵에너지의 연구·개발, 핵발전용 원자로의 설계·건설·운영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
- 「형사사법공조조약」은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있어 양국간 공조를 규정하고 있음.
- 양국은 이와 같은 조약과 협정의 체결을 통해 협력관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음.

○ 양측은 장기적으로 양국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국민들간의 상호이해와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와 교육, 과학,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교류를 촉진하기로 하였음.

○ 또한 양측은 군축, 인권, 환경을 포함한 범세계적인 문제해결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협력하기로 하였음.

○ 엘친 대통령은 김대통령의 방문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회담이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지적하는 한편, 김대통령의 방한초청을 수락하였음.

IV. 우리의 고려사항

1. 21세기 대러 외교전략과 정책 수립

○ 우리 정부는 강국 러시아가 경제난 때문에 현재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인 실익 중심의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대러 외교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수교이후 지난 9년간의 양국관계를 재검토·평가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우리의 새로운 대러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통일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주변 4강중 일국이라는 인식이 필요함.
- 국토가 광대하여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1억 5,000만명에 달하는 러시아는 한국의 주요한 자원획득 및 상품 수출 시장임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러 경협 및 투자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러시아는 한·러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북한과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을 공식조인(7월 예정)하여 악화되었던 대남 북한 관계를 모두 정상화함으로써 ‘균형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우리 정부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또는 동북아 경제협력

체 형성에 관한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관료·학자간의 공동 학술 회의 개최 등 남북한관계에서 러시아의 긍정적인 역할을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 정부는 한국과 미·일·중 3국의 관계를 비교할 때 한·러 고위인사들간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고위관료, 국회의원, 학자, 언론·문화계 인사 등의 상호교류를 확대·정기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러시아가 총선(12월)과 대선(2000년 여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러시아 각계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할 것임.

- 특히 차기 러시아 대통령으로 부상하고 있는 프리마코프 전총리, 루즈코프 모스크바 시장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ASEM 가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2. 한반도 평화협력의 파트너십 강화

○우리 정부는 북한 어선과 경비정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북한에 권고해 줄 것을 러시아 정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는 최근 코소보 사태로 NATO와 갈등을 겪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 저지를 위한 한·미·일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1998년도 총회(1998. 10)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자국의 기술자들이 관여했다는 국제여론을 의식하여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비난하는 의장 성명 발표에 처음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음.
-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러시아는 미·일의 TMD 계획에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 생산, 수출 문제에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금년 7월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시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수용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함.

○불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주변국 민간 항공기와 해상활동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북한이 재차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경우 주변국에 사전통보해 주도록 한·러 양국 정부가 북한에 공동으로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임.

○북한이 마약 밀매를 통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러시아 군사무기나 부품을 구매하는 사례들이 있는 바, 러시아 정부에 이에 대한 철저

한 단속을 요구해야 함.

○러·북간에 공식 조인될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과 관련, 우리 정부는 동 조약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함.

- 러·북간의 우호관계 유지는 남북한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대화 또는 동북아 6자회담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 중국,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러 양국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성공사례 연구로부터 동북아 지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양국간 공동연구가 가능할 것임.

3. 상호보완적 경험확대와 대규모 투자사업의 단계적 추진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가장 이해가 큰 통상과 경험의 점진적인 확대를 기대할 것임.

- 양국간 교역은 한국경제의 호전에 따라 작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나 한국이 IMF 사태를 극복할 때까지는 연 20~30억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됨.

-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는 러시아의 경제위기와 투자여건 미비

등으로 당분간은 대도시와 러시아 극동지역 중심의 소규모 형태로 계속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민간차원의 구상무역이 가능하도록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임.

- 양국 정부는 교역 증진을 위해 상대국을 일반관세특혜 수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모스크바 「한·러 무역센터」,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시베리아 사하와 사할린 가스 및 원유 개발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IMF사태 극복 정도와 러시아측의 투자환경 조성 상황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양국의 경제위기로 최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차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 1단계로 향후 6년간 6만평 단지를 조성한다는 선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당초 100만평을 조성할 예정이었던 나호드카 한·러공단 건설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공단이 완성되면 러시아와 구소련공화국들에 거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

○정상회담에서 약속된 사업들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국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이전 경험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임.

- 후속조치들의 이행을 위해서는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함.

○러시아 정부는 남북한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자국이 제안(1994)한 바 있는 남북한과 러시아간의 3각경협 17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 정부는 동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러시아 잠수함 구매의 긍정적 고려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대북 포용정책 지지에 대한 대가 등으로 한국측에 자국 군사무기의 구매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정부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 Kilo급 디젤잠수함 1~2척을 구매하고 경협차관 원금과 이자의 미수금(약 17억달러) 일부로 상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배터리 등 부품의 지속적인 공급이라는 조건도 충족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우리 정부는 잠수함 구매에 반대하는 국내여론을 고려하여 러시아 정부가 현금으로 판매하기 보다는 경협차관 미상환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수용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부록> 한·러 공동성명문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리스 옐친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초청으로 1999년 5월 27일에서 5월 30일간 러시아연방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대통령간에 양국관계와 국제 현안문제 전반에 관하여 건설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1. 양측은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 강화가 21세기를 앞두고 양국간의 다각적인 상호교류에서 지도적 개념이 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접근이 양국의 장기적인 국가이익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보 및 안정, 번영을 위해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1992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양국간의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기초가 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러 협력이 주권평등과 상호이익, 영토적 일체성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여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과 국제법의 규범 존중을 기초로 증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현재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우호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줄 모든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 유의하였다.

2. 양측은 지난 수년간, 국가와 정부, 의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정치접촉 체제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이러한 대화 경로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시켜 나가

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국가와 정부 수반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협의가 특히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법적 기초를 확대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은 이번 방문중에 아래와 같은 일련의 협정이 서명된 데 만족을 표시하였다.

-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 형사사법공조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원자력협력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나호드카 수출자유 지역내 한·러 공단 설립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와 러시아연방 경제부간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3. 양측은 양국의 무역과 경제협력 강화에 관하여 유익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양측은 양국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크고 무역 및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 할 수 있는 다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의 발전과 공동 번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간다는 데 전폭적인 의지를 표시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시기에 이번 회담이 개최되었음을 유의하였다. 그들은 양국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궤도로 되돌려 놓는 데 있어 서로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1999년 5월 1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차 한·러 경제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가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루었음을 인

정하고, 무역, 투자, 에너지와 천연자원, 제조업과 공업, 중소기업, 과학과 기술, 전기통신, 어업, 해운, 환경보호, 지역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무역과 투자를 재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들은 양국간 교역이 가까운 장래에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을 강력히 희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양국간 무역 및 경제협력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고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간의 무역과 투자 및 여타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와 러시아 지방의 관리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업계에서도 역시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양측은 나호드카 자유무역지대 한·러공업단지(Korea-Russia Industrial Complex)가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유용한 사업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측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인정하면서, 에너지와 광물자원, 과학과 기술 및 공업 분야에서의 양자간 협력확대가 경제관계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중소기업 부문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구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이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러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한 어업 협력과 해양과학기술

및 해운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다자무역체제 발전 뿐 아니라 양국간 교역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이해를 같이 하였다.

4. 양측은 러시아와 한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문화와 교육, 과학, 정보 분야에서의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토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제1차 한·러 포럼이 모스크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5. 세계 정세를 논의함에 있어 양측은 많은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하였다. 특히 국제연합과 여타 국제기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국제 현실에 맞추기 위하여 이들 기구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21세기를 앞두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 및 지역문제들이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규범을 기초로 비대결적이고 안전하며 민주적인 세계질서 구축을 목표로 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양국의 외교정책이 서로 다른 극이 상호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다원적 세계 강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강조

하였다. 러시아측은 정치적 수단과 대등한 동반자 관계 그리고 상이한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통한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창한다.

양측은 국제연합이 전체 국제관계 체제의 중심적 요소이며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유엔안보리 결의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범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국제분쟁이 정치,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들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국제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다른 국제 현안들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유고슬라비아 상황이 조속히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체제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모든 국가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과 무기용 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의 성공을 희망하였으며, 미사일의 개발과 수출을 포함한 국가미사일계획이 역내 안정과 국제비확산체제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6.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 및 협력 문제를 다룸에 있어 양국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1998년 11월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의 상호교류를 더욱 증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9월 오클랜드에서 개최되는 APEC 경제지도자회담의 준비와 회담 기간중 건설적인 대화를 가질 용의를 표

명하였다.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함에 있어 아세안지역포럼(ARF)이 유용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역내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접근법 개발을 추구하는 ARF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이 정하는 신규회원국 가입의 기준과 방식에 따라 이 기구에 가입하려는 러시아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7. 양측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대화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역내 정세의 가측성을 제고하고 지역 안보협력 문제를 토의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는 것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시아 불안정의 잠재적 근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이 역내 안정을 위하여 긴요함을 이해하였다. 그들은 한반도 문제가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간에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유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측은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남·북대화 재기가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러시아측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하게 할 남·북한간 접촉과 생산적 대화를 촉진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러시아측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한국측은 러시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이 참가하는 동북아시아 다자 안보협력대화 구축을 위한 제안들을 환영하였다.

다자대화는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안보환경과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 포럼은, 러시아가 그 성공을 기원하고 현재 남·북한 및 미국, 중국간에 진행중인 4자회담과 동시에 기능할 수 있다.

양측은, 한반도비핵화를 확보하는 과정을 지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1992년 공동선언과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건설적인 협력과 안전조치협정상 제반 의무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8. 양측은 양국 관계의 성격을 반영하여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열린 모스크바에서의 회담과 협상의 결과에 만족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엘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엘친 대통령은 이 초청을 감사하게 수락하였다. 끝.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 김영춘 신상진의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이우영 김영윤외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전망	내구력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외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흠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 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외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 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저	6,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공저	발간예정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 · 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 · 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 · 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 · 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 · 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6,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 · 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 · 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외공저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외공저 \$ 9.90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0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발간예정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을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1998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統一情勢分析 99-04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901-2757(代), FAX: 901-2543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2266-0892
인쇄일 1999년 6월 일
발행일 1999년 6월 일
